



# 2015년 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와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2015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sup>1)</sup>에서 동결된 가운데, 세계 경제 둔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재논의되고 있음.

- 유로 지역, 일본 등 주요국 경기회복세 부진, 신흥국 경제 둔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스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음.
- 달러 강세 압력,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저물가, 금융시장 불안 등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커지며, 미국 고용시장은 위축됨.
- 한편, 2015년 3월 FOMC 정례회에서는 인내심을 갖는다(*be patient*)는 표현을 삭제하며 기준금리 인상이 곧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sup>2)</sup>, 2015년 9월 기준금리는 동결됨.

■ 미국 연준은 2015년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어 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르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어야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힘.

- 옐런(Yellen)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안정적이고 미국 경제가 안정권에 도달한다면 2015년 10월 또는 2015년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피셔(Fisher) 부의장은 기준금리 조정은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미국 연준 위원들도 2015년 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약속’은 아니라고 언급함.

■ 최근 미국 고용지표 부진,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하방 압력,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미국 연준의 정책 변경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1) 미국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로서, 앞으로 2015년 회의는 10월 28일과 12월 16일 두 차례 남아있음.

2) 이아름(2015), 「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수는 14만 2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20만 명을 하회하였고 7월과 8월 신규 고용자수도 하향 조정됨.
  - 2015년 7월 신규 고용자수는 24만 5천 명에서 22만 3천 명으로, 8월의 경우 17만 3천 명에서 13만 6천 명으로 하향 조정됨.
  - 실업률은 5.1%로 7년 이내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은 1977년 이후 최저치인 62.4%를 기록함.
- 미국 연준의 브레이너드(Brainard) 이사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는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신흥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위축되어 미국의 무역과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및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로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의 Jon Hilsenrath 연준 전문기자는 최근 발표된 미국 소매판매와 인플레이션, 고용 등 주요 지표 부진으로 2015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함.
- Capital Economics의 Paul Ashworth 이코노미스트도 2015년 9월 소매판매 둔화로 미국 연준이 2016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Deutsche Bank와 BNP Paribas 등도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상시기 전망을 2015년 12월에서 2016년 3월로 수정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2015년 10월과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각각 8%, 37.4%에 그쳤으나, 2016년 1월과 3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44.9%, 59.3%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9월 소매판매에서 자동차 등 일부 부문이 호조를 보였고 미국 연준의 경기 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Beige Book)에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5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FRB, WSJ 등)